

제주SK FC, 또 안양 잡는다

오늘 코리아컵 16강전 FC안양과 원정경기
K리그1 8경기 무패 여세 몰아 2연승 도전

K리그1 8경기 연속 무패(4승 4무)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제주SK FC가 코리아컵 정상 도전에 나선다.

제주SK는 19일 오후 7시30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과 코리아컵 16강전을 치른다. 지난 주말 K리그1 23라운드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안양과의 맞대결이다.

지난 23라운드에서 제주SK는 최근 5경기 1승4패로 열세를 보인 안양을 상대로 신상온과 유인수가 전·후반 한골씩을 넣으며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K리그1에서 패배하지 않은 팀

은 제주SK가 유일하다.

제주SK는 코리아컵에서도 안양을 잡고 2연승으로 8강에 올라 2004년처럼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2년간 제주SK의 코리아컵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2024년 시즌은 돌풍의 김포FC를 꺾고 4강에 올랐으나 포항 스틸러스와 1무1패(통산 스코어 3-4)로 준결승에서 탈락했고, 2025년 시즌도 3라운드 첫 경기였던 부천FC와 연고지더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제주SK는 이번 경기가 안양 원정경기인 만큼 지난 23라운드 홈경

기와는 달리 이동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등 쉽지 않겠지만 K리그1과 코리아컵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나선다.

게다가 16강전 이후 코리아컵 일정도 내년엔 잡혀 있어 안양만 잡는다면 남은 K리그 일정에도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최고의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은 K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등의 일정을 고려해 경기 운영 방식 등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

16강전 이후의 코리아컵 일정은 2027년 5월에 재개된다. 8강전은 2027년 5월 19일, 준결승전은 5월 26일, 결승전은 6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SK FC가 지난 15일 안양전을 승리로 이끈 뒤 홈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제주SK FC 제공

10월 제주 전국체육대회에 2만9044명 참가 신청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2만90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올해 전국체전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선수 1만9576명과 임원 9468명을 합해 총 2만9044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의 2만8791명보다 253명 늘었다.

선수는 남자가 1만2435명, 여자는 7141명이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내외 74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50개 종목에서 경쟁이 펼쳐진다.

대진 추첨은 20일 오후 1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전국체전에는 28개 토너먼트 경기 종목을 대상으로 전산 프

로그램 기반의 자동 대진 추첨 방식이 도입됐다.

체육회는 기존 현장 추첨 방식에서 발생하던 각 시·도와 종목 단체 관계자의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자동 무작위 배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자동 대진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추첨 과정은 대한체육회 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오픈플로어볼대회가 지난 14~16일 14개국 1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주도플로어볼협회 제공

제주플로어볼대회 ‘아시아 대표’ 가능성 확인 14개국 1200여명 참가 역대급 규모… 제주 블루돌핀스 여자 3위

국내 유일의 국제 플로어볼 대회인 ‘제10회 제주국제오픈 플로어볼대회’가 14개국에서 12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로 치러졌다.

제주특별자치도플로어볼협회(회장 송진호) 주최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체 참가자 가운데 싱가포르 200명 등 외국인이 300명에 달해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국제 대회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제주지역에서도 남자부 4개 팀과 여자부 3개 팀이 출전해 국내외 선수들과 경쟁을 펼쳤다. 남자부에는

제주 블루 돌핀스, 제주 오션스, 대기, 탐라데빌, 여자부에는 제주 블루돌핀스, 탐라데빌, 신성이 제주를 대표해 출전했다.

남자부는 ASTRA, 여자부는 Seoul Vikings가 우승했고 제주 팀은 여자부에서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한 제주 블루돌핀스가 우승팀 바이킹스와 준결승에서 1대2로 석패한 후 싱가포르 FedFat를 4대1로 제압하며 3위에 올라 제주 플로어볼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특히 제주팀은 플로어볼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부터 처음으로 신설된 40세 이상 대상 마스터부에

서 승리를 일궈냈다. 제주지역 선수들로 구성된 제주팀은 다른 지방과 해외 선수들로 구성된 연합팀과 치열한 공방 끝에 8대6으로 승리했다.

송진호 회장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플로어볼 대회 가운데 일반부 대회에 40대 이상 선수들을 위한 마스터부가 별도 종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라며 “단순한 국제 스포츠 경기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제주에서 함께 경기를 치르고 교류하며, 국내 플로어볼 선수들에게 해외 선수들과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영석기자

제4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중문중, 금 1·은 1·동 3개 ‘종합 3위’

김효민 자유형 200m ‘금’
조유진 개인혼영 200m ‘은’

제주 수영 꿈나무 김효민(중문중3)이 개인 최고기록을 8초 이상 앞당기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제45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중부 자유형 200m 결선에서 김효민은 2분7초63으로 타치패드를 찍으며 2위 정소이(인천, 2분7초70), 3위 조하린(경기, 2분7초71)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김효민의 이번 기록은 기존 자신



중문중이 대통령배 수영대회 3위에 올랐다.

의 기록을 8초 이상 단축한 것으로, 빠른 성장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효민은 자유형 50m에서도 동메달, 조유진·박민서·허태연(중문중)과 함께 출전한 혼계영 400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로 따내는 기쁨을 토했다.

김효민은 지난 달 열린 2026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여중부 자유형 100m에서 59초23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등 2개 전국대회 연속 금메달 패거리를 이뤄냈다.

이와함께 조유진(중문중3)은 개인혼영 2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은메달을 따냈고 접영 1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문중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제98회 동아수영대회에 이어 또 다시 여중부 종합 3위에 올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시사기획 창(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망의 달(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뽀 좋아좋아 스페셜 11:15 건강의 재구성 썰북(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4방불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도전 AI 해결단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25 EBS 광생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Z 18:20 고향민국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10 열린세상 14:50 어린이동물타자(재) 15:20 인생이 영화(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하이라인 인사이드(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앙상블명 산(재) 17:00 마자엔론 4 17:15 프린세스 캐처 티나핑 17:30 꿀벌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재) 13:25 최고의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재) 14:00 뉴스브라임 15:30 아짜대 어른 16:00 내모세요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기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준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제주CBS FM 93.3MHz 90.9MHz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일극 북극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쾌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망의 달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봉주르행집 23:15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8:05 애들은 가라 1호집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유유녀 길러(재) 22:20 플레어리스트 109 스페셜 23:2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매리는 그녀들 22:50 재벌X형사 2(재)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TBN제주교통 FM105.5MHz 105.9MHz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9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실 교수(010-5233-6136)

36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48년 만남이나 자녀가 찾아오니 마음이 기쁘다. 60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72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84년 직장인은 변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이직운이 있기도 하다.

37년 생각과 상상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 49년 화목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61년 행사나 단체모임에 참여하니 술은 자제. 73년 확장이나 이직은 보류하고, 무리한 투자는 금물. 소득없는 바쁜 일이 생긴다. 85년 새로운 기회를 잡으니 주위 사람과 상의해 길을 모색하라.

38년 분주하며 자녀문제 또는 이사문제가 있다. 50년 가족 또는 부부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격한 언행 주의. 62년 활동성이 늘어나며 바쁘고 분주하다. 부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74년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니 적응하라. 86년 할 일이 생기고 나를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39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일이 풀린다. 51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는 데 망설인다. 모임이 있으면 참석. 술은 주량만큼만. 63년 상대방과 경쟁 시 마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75년 직장인에게서는 호운이 오고 자영업은 휴식이 필요하다. 87년 신속한 결정은 인정을 받고 이익을 준다.

40년 함께 의논할 일이 있으면 주변 또는 자녀와 상의하면 좋다. 52년 자녀를 위한 일이나 변동문제 급전문제로 가정에서 불화 발생. 64년 직장변동수가 있거나 부모와 마찰이 생긴다. 76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소식을 듣는다. 88년 계획한 일에 자질이 오니 다음으로 미루라.

41년 돈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53년 부하직원이나 자식문제로 고민. 스트레스를 받는다. 65년 친구나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일거리가 생기고 재물운이 좋다. 77년 가정에서 논쟁이,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 89년 이성이 찾아오고 교제를 원한다. 미망이나 소개팅 상대가 미흡.

42년 자녀 일이 원만하지 않아 고민. 자녀문제로 자금 지출. 54년 형제자매 간에 문제가 생기며 구설이 따르고 다툼이 있다. 66년 윗분이나 부모님의 소식을 접한다. 78년 취업이나 직장에 관한 소식이 있거나 이성 만남이 있다. 90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주변사람과 상의해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43년 가까울수록 예의와 신용이 중요.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55년 몸이 쇠약해지고 질환이 올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것. 67년 문서관련 시비나 구설이 있으니 계약은 미루고 심사숙고. 79년 직장이나 업무관련 구설수가 있으니 주의. 가정에서 인연 닦음. 91년 문서에 이득이 있고 초대받을 일이 있다.

44년 동상이몽이라 생각이 다른 가운데 분쟁 소지가 염려된다. 56년 문서 매매에 이득이 있다. 소개·중매·계약 길. 68년 모임에 과음이나 언행주의. 실언이나 관재구설에 후회를 한다. 80년 무리한 탐욕성향으로 정신적 고통과 손재수를 가져온다. 이성교제에는 매나가 필요. 92년 나를 필요로 하면 도와줘라.

45년 자식의 일로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57년 갑작스런 외출이 있을 수 있으며, 분실수 우려. 분단속 철저. 69년 신경이 예민해 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및 안전사고 주의. 조기 귀가. 81년 친구 또는 이웃과 인연이 생기니 먼저 배려하라. 93년 의논 할 일이 있으면 친구 또는 주변사람의 도움이 크다.

46년 자녀나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근심이 생긴다. 58년 관재구설 시비수 조심. 운전 교통사고 주의. 70년 직장이나 업무에서 인정받고 승진운이나 가정에서는 부부애정에 적신다. 82년 양보다 질이 우선시되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94년 마음을 호탕하게 갖자. 짜증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47년 생각은 많고 불면증으로 밤이 무섭다. 마음의 안정과 내 건강이 우선. 59년 육하는 다혈질 성격은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취미활동 필요. 71년 아버지와 의견다툼, 처와 불협화음이 있다. 83년 성과가 기대 이하이고 하자가 발생하니 꼼꼼히 체크하라. 95년 주변의 도움으로 수입이 생기고 건강 회복.